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 인플레이 회복 전망 어두워
- CNN Business: 연준, 오히려 금리 인상할지 모른다
- CNBC: JP모건 CEO, “향후 주요 위협은 인플레이, 전쟁, 연준 정책”

[미국 금융]

- Bloomberg: JP모건, 순이자이익(NII) 하락 후 주가 하락
- Bloomberg: 씨티, 수익 급증... 기업과 소비자들의 대출 급증으로
- Bloomberg: 웰스파고, 예금 지급 압박에 순이자이익 목표 못 미쳐
- Bloomberg: 금값, 2천4백불 돌파... 중동 리스크가 수요 부추겨

[미국 생활]

- Bloomberg: “요새는 플로리다가 뉴욕보다 생활비 싸지 않다”

[뉴저지]

- NBCNewYork: 뉴저지트랜짓 요금 15% 오른다

[에너지]

- WSJ: IEA, “내년에 글로벌 오일 수요 성장세 둔화된다”

[인공지능]

- Bloomberg: Celesta Capital, “미국, 칩 제조 노력에 매력적인 AI 허브로 거듭난다”
- WSJ: 에너지 과소비 AI, 미래에 에너지 절약도 한다

[미중 경제]

- Bloomberg: 중국 수출 회복 예상보다 주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아마존 임원, 로봇이 일자리 빼앗아간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
- Bloomberg: 미 항공사들, 당국에 중국 항공사 추가 제한 요청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Consumer Sentiment Slips on Dimmer View of Inflation Outlook **미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 인플레이 회복 전망 어두워**

- 4월 초에 미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보다 하락했고 인플레이 기대 심리는 상승했다. 미국인들이 고물가에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한다.
-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예비치는 2021년 중반 이후 최고치였던 지난달 79.4에서 77.9로 하락했다.

- 소비자 기대 물가치는 내년엔 3.1%로 상승했다. 지난달 조사의 2.9%보다 높은 것이다.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은 3%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The Fed might not be done raising interest rates just yet 연준, 오히려 금리 인상할지 모른다

- 3월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3.5% 늘었고 휘발유 가격과 주택 비용도 높은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이처럼 악화될 경우 연준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 매파로 알려진 연준 이사인 Michelle Bowman는 인플레이션이 정체가되거나 역전될 경우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총재인 Neel Kashkari는 지난주에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상이 논의 어젠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Jamie Dimon warns that inflation, wars and Fed policy pose major threats ahead

JP모건 CEO, “향후 주요 위협은 인플레이션, 전쟁, 연준 정책”

- 미 금융계에서 영향력이 높은 JP 모건의 Jamie Dimon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무서운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연준의 금융 상황에 대한 긴축 정책이 향후 경제에 위협을 주는 요소라고 말했다.
- 그는 “앞날을 바라볼 때 수없이 많은 중요한 불확실한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JPMorgan Shares Fall After NII Miss, Higher Expense Guidance

JP모건, 순이자이익(NII) 하락 후 주가 하락

- JP모건은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한 순이자이익(NII)이 기대에 못미쳤다. 예금자에 돈을 지불해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높은 이자율에 대한 혜택이 줄고 있는 것.
- 해당 은행은 올해 1분기에 순이자이익으로 2백31억불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11% 상승치다. 은행은 올해 주요 수입원으로부터 9백억달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마켓 비즈니스를 제외한 가이던스를 8

백9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로 인한 결과와 전망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했던 일부 분석가들의 예상과 달랐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iti Profit Beats as Companies, Consumers Go on Borrowing Binge

씨티, 수익 급증... 기업과 소비자들의 대출 급증으로

- 씨티 그룹은 기업들의 대출과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의존에 힘입어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을 올렸다. 장기적인 고금리의 혜택을 본 것이다.
- 올해 1분기 순이익이 34억달러, 주당 1달러 58센트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블룸버그의 분석가 대상 설문에서 예상한 주당 1달러 23센트를 상회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ells Fargo NII Misses Estimates as Depositor Pressure Grows

웰스파고, 예금 지급 압박에 순이자이익 목표 못 미쳐

- 웰스파고는 올해 1분기 순이자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용자 성장이 약화되고 예금에 대해 지급 압박이 커지면서 높은 이자율의 혜택이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 올해 1분기 순이자이익은 1백22억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8.3% 감소했고 예상치 1백23억불에 약간 못 미쳤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이는 투자 자문 서비스비용과 브로커리지 커미션 증가에 힘입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 Jumps to Top \$2,400 as Middle East Risks Stoke Demand

금값, 2천4백불 돌파... 중동 리스크가 수요 부추겨

- 중동 긴장이 계속되면서 금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요일 오전에 처음으로 온스당 2천4백불을 돌파했다. 1.2% 상승한 2천67센트.
-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대상관을 공격한 후, 이란 측의 보복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 전문가들은 금이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국채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좋은 헤지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Florida Is Not So Cheap Compared With New York These Days

“요새는 플로리다가 뉴욕보다 생활비 싸지 않다”

- 주택 비용이 높기 때문에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살기 위해 뉴욕을 떠나는 이들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
- 물론 연 10만불 이상 버는 사람들은 소득세 없는 주로 옮길 때 저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주함에 따라 마이애미, 오스틴, 달라스 등이 지난 2029년 이래로 임대와 주택가격이 커지고 있어 주거지를 옮긴다 해도 예전만큼 실제 재정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여전히 미국에서 맨해튼이 가장 비싼 지역이기는 하지만 고인플레이 때문에 마이애미, 달라스, 오스틴의 생활비가 뉴욕을 따라잡고 있다.

Bloomberg 기사

[뉴저지]

NBCNewYork: NJ Transit board approves 15% fare hike, first increase in nearly a decade

뉴저지 트랜짓, 요금 15% 오른다

- 뉴저지 트랜짓 기차와 버스 요금이 오는 7월부터 15% 인상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연간 3%씩 상승하게 된다.
- 예컨대 버스인 경우 저지시티에서 맨해튼 포트오소리티버스터미널까지 현행 3달러 50센트에서 4달러로 오른다. 아래는 자세한 요금 인상 내역.

NBCNewYork 기사

[에너지]

WSJ: IEA Expects Global Oil-Demand Growth to Slow Further in 2025 IEA, “내년에 글로벌 오일 수요 성장세 둔화된다”

- 국제 에너지 기구는 올해 오일 수요 성장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반등이 마무리 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늘면

서, 내년도 역시 수요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예전에는 상장 규모가 하루 1백30만배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1백20만배럴이라고 밝혔다. 총수요는 매일 평균 1억32만 배럴이다.
- 내년에는 성장 규모가 매일 1백10만배럴에, 매일 총 평균 수요는 1억43만 배럴로 예상했다.

WSJ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Chipmaking Push Makes US Attractive AI Hub, Celesta Capital Says **Celesta Capital, “미국, 칩 제조 노력에 매력적인 AI 허브로 거듭난다”**

-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Celesta Capital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첨단 칩 제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곳이다.
- Open AI에서 시작된 AI 열풍과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생산으로, 미국은 이미 해당 분야에서 선두에 자리 잡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지원 계획과 함께, 벤처 투자자들은 AI 분야의 신생 기업에 투자하기에 미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Celesta 창립 파트너인 Sriram Viswanathan은 “딥테크 투자자로서, 우리는 AI와 로봇공학 분야에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회가 훨씬 앞서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Energy-Guzzling AI Is Also the Future of Energy Savings **에너지 과소비 AI, 미래에 에너지 절약도 한다**

- AI 데이터 센터의 지나친 전력 소비량이 전력망 사용량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의 가장 덜 매력적인 사용처인, 가정 및 상업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요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AI는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IEA에 따르면 간단히 ChatGPT에 요청하는 경우에도 일반 구글 검색보다 대략 10배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 이번 주 칩 제조사 Arm의 CEO는 에너지 절감법을 찾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25%를 소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아이러니하게도 AI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해당 기술이, 에어컨과 조명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인류의 일상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건물에서의 전력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WSJ 기사

[미중 경제]

Bloomberg: China Exports Drop More Than Expected in Setback to Recovery**중국 수출 회복 예상보다 주춤**

- 3월 중국의 수출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해외 판매 실적이 국내 수요를 상쇄하고 2번째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타격을 입었다.
- 금요일 중국 관세 기관은 3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달러 기준 7.5% 감소했고, 수입은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두 수치 모두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 해당 월의 무역수지는 대략 5백90억 달러였다.
-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는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 이번 주 중국 정부는 12개월간 소비자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Top Amazon exec says it's a 'myth' robots steal jobs**아마존 임원, 로봇이 일자리 빼앗아간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

- 목요일 아마존의 한 고위 임원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로봇과 타 기술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myth)'이라고 말했다.
- 아마존의 글로벌 로봇 공학, 메카트로닉스 및 지속 가능한 패키징 담당 이사 Stefano La Rovere는 첨단 로봇 공학, AI, 그리고 다른 기술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위 및 역할을 향상한다고 말했다.
- 그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직업군도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아마존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유럽의 주문 처리 센터에서 5만명 이상의 인력을 더 고용했다는 것이다.

CNBC 기사

Bloomberg: US Airlines Urge Officials to Block Additional China Flights**미 항공사들, 당국에 중국 항공사 추가 제한 요청**

- 미 항공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중국과의 신규 항공편 승인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 국가의 "반경쟁 정책"이 미국 항공사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 목요일 “중국 항공 시장의 성장이 시장 접근의 평등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용된다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중국 항공사에 항공편을 계속 내주게 될 것”이라는 서한을 공개했다. 다. 해당 서한은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Pete Buttigieg 교통부 장관에게 발송된 것.
- 앞서 미국은 중국민용항공총국 직항 항공편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후, 3월 31일부터 중국 항공사의 왕복 항공편 운항을 35편에서 50편으로 확대 승인했다.

Bloomberg 기사

美 연준 인사들,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에 '성급한 금리인하' 경계

**뉴욕·보스턴·리치먼드 연은총재 "인하 서두르지 않아" 한목소리
IMF 총재 "연말까지 美 금리 인하 시작할 것"...골드만 "인플레이션 크게 내려올 것"**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반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매우 단시일 내에 통화정책을 조정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변동성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연준 목표인 2%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팬데믹 시작 이후 그래왔듯 전망은 불확실하며 계속해서 경제지표에 의존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